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이용수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수자원개발부  
(lyswater@dohwa.co.kr)

# 미호천 발원지 답사기

일시: 2010년 11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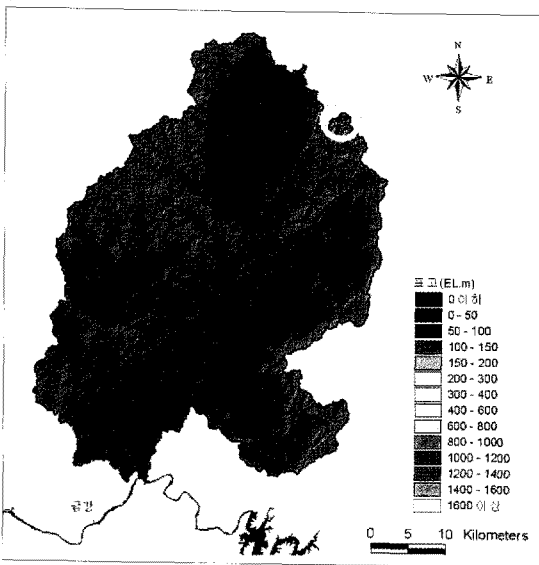
## 1. 미호천 개요

충청도 중북부 최대의 하천인 미호천(美湖川)은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보현산(普賢山, EL.478.0m) 북서쪽 계곡에서 흘러나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를 지나며 미호평야를 흠뻑 적시고 충남 연기군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수군 수분리에서 출발한 금강(錦江)에 합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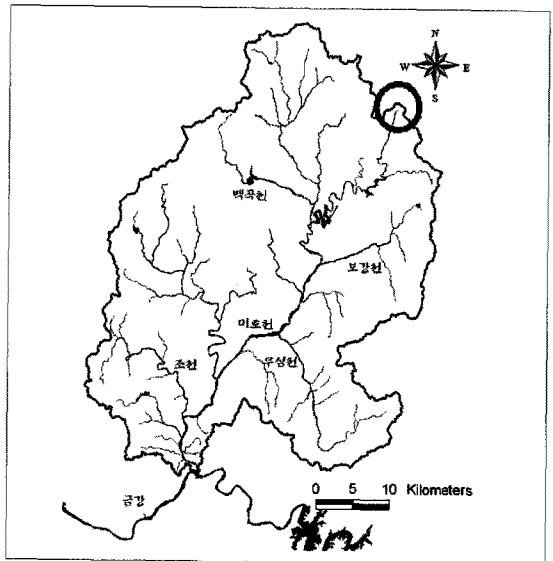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이름에 아름다울 미(美), 호수 호(湖)자를 써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였을까? 미호천은 흘러가는 여정이 평야지대를 지나기 때문에 예로부터 연안에서

쌀농사를 많이 지었고 이를 위한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어 있어 호수가 많고 또한 유역경사가 완만하여 근처에 산재한 넓은 들을 이리저리 굽이치며 흐르며 만들어진 금빛 색깔의 백사장이 장관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하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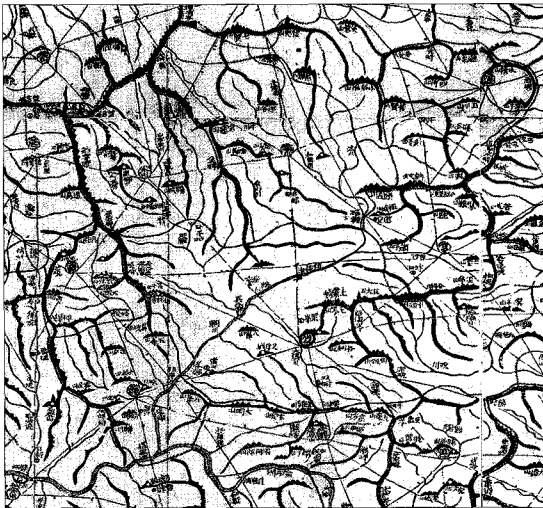
미호천은 동경 127°9'11"~127°41'28", 북위 36°30'24"~37°3'8" 사이에 위치하며, 유역면적은 1,854.98km<sup>2</sup>이며 유역둘레는 272.01km이고, 유역평균폭은 23.14km, 유역평균표고는 EL. 136.28m, 유역평균경사는 19.73%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안성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 3도 3시 6군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미호천 표고분포도



(그림 2) 미호천 하천분포도



(그림 3) 대동여지도 상의 미호천

미호천이라는 이름은 근대 이전에는 없던 이름으로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 등의 지도에는 청주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동진강(미호천 하류 연기군에서 금강 합류점까지)으로 흘러드는 하천의 상류에서부터 오근진, 작천, 진목탄, 망천, 부탄이 차례로 표기되어 있음을 통해 당시까지는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불렸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에는 '미호천(美湖川)'이라는 지명이 뚜렷하게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미호천은 금강의 지류로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2개 지역에서 발원하여 진천, 연기, 안성, 음성, 청주를 지나 충남 연기군 동면과 남면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미호천'은 예로부터 불리던 이름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근대적인 지도를 만들면서 새롭게 붙인 이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후의 지도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직후에 시작하여 15년 만에 완공된 미호제방이 까치내, 호계리, 궁평리, 서평리에 걸쳐 있다. 이 제방이 완공된 후 홍수피해를 막게 되면서 현재의 비옥한 미호평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sup>1)</sup>

문헌상에 있는 미호천에 관한 기록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sup>2)</sup> 제18권 충청도 연기현(燕岐縣)편에 "동진(東津) : 현 동쪽 5리에 있다. 그 근원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진천현(鎭川縣) 두타산(頭陀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청주 적현(赤峴)에

서 나오며, 하나는 진의현(全義縣)에서 나오는데, 남쪽으로 흘러서 공주의 금강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미호천의 원(原)이름은 동진(東津)이고 그 근원이 셋이 있는데 진천(현재 미호천 본류), 청주(현재 무심천), 연기군 전의면(조천)을 큰 줄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미호천 전경

동진이 있는 연기의 바로 윗 고을인 청주편을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5권 충청도 청주목(淸州牧)편에 "오근진(吳根津) : 고을 북쪽 20리에 있는데, 곧 청안현(淸安縣)의 반탄(礮灘) 하류이다. 진목탄(眞木灘) : 고을 서쪽 35리에 있는데, 오근진의 하류이다. 연기현(燕岐縣)의 동진(東津)을 거쳐 공주(公州)에 이르러 금강으로 들어간다. 대교천(大橋川) : 고을 남쪽 1리에 있으며, 근원은 적현(赤峴)에서 나와 오근진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통해 동진(東津)의 상류는 진목탄(眞木灘)이며 그 상류는 오근진(吳根津)임을 알 수 있다. 대교천(大橋川)은 오늘날의 무심천(無心川)으로 청주를 관류하는 하천이다.

오근진의 상류를 살펴보고자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6권 충청도 청안현(淸安縣)편을 살펴보면 "반탄천(礮灘川) : 고을 서쪽 27리에 있다. 그 근원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진천현(鎭川縣) 북쪽에서 나왔고, 하나는 음성현(陰城縣) 박이현(朴伊峴)에서 나왔으며, 하나는 좌구산에서 나와서, 청주 오근진(吳根津)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반탄

1) 한국지명유래집(총정판) (2010년, 국토지리정보원)

2) 한국고전종합DB - 한국고전번역원(<http://db.nk.ac.kr>)

천이 오근진의 상류이고 근원이 진천(미호천 본류)과 음성(초평천), 증평 좌구산(보강천)으로 3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책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6권 충청도 진천현(鎭川縣)편에 “주천(注川) : 고을 동쪽 10리에 있으니, 청안현(淸安縣) 반탄(礮灘)으로 들어간다. 우천(牛川) : 고을 북쪽 4리에 있으니 주천(注川)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곧 미호천은 진천의 주천(注川)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각 고을 편에 수록된 미호천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미호천은 진천의 주천(注川)에서 시작하고 그 하류는 청안의 반탄천(礮灘川), 청주의 오근진(吳根津), 진목탄(眞木灘)을 거쳐 연기의 동진(東津)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원은 진천으로 적고 있어 뚜렷한 발원지를 표기하고 있지 않다.

구한말 조선왕조시대에 마지막으로 편찬된 총체적 문물정리 사업의 결과인 『증보문헌비고』 번역문<sup>3)</sup> 『제20권/여지고 8/산천 2/내/금강』 편에 보면 “동진강(東津江) : 근원이 충주(忠州)의 망이산(望夷山)에서 나와, 사창(社倉)을 경유하여 남쪽으로 흘러 진천(鎭川), 산정(山井)의 경계에 이르고, 가리천(加里川)과 우천(牛川)을 지나 석탄(石灘)이 되며, 주천(注川)을 지나 남쪽으로 우담(牛潭)이 되고, 서쪽으로 반탄(礮灘)이 되며, 보련산(寶蓮山)의 태산천(台山川)이 되고, 청안(淸安)의 증자천(曾子川)을 지나 서쪽으로 꺾어서 남쪽으로 오근진(梧根津)이 되고, 신원(薪院)에 이르고 작천(鵲川)이 되며, 피반령(皮盤嶺)과 적현(赤峴)의 대교천(大橋川)을 지나 진목천(眞木津)이 되고, 병천(井川)을 지나 서남쪽으로 흘러 부탄(浮灘)이 되며, 전의(全義)의 생줄천(生拙川) ((全義)의 산천편(山川編)에서는 생굴천(生掘川)이라고 하였다.) 을 지나 남쪽으로 동진(東津)이 되고, 용당(龍塘)에 이르러 나리진(羅里津)에 들어간다. 가리천(加里川) : 근원이 죽산(竹山)의 칠현산(七賢山)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광혜원(廣惠院)을 경유하여 동진(東津)에 들어간다. 우천(牛川) : 근원이 진천(鎭川)과 대문령(大門嶺)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

러 현(縣)의 치소를 경유하여 동진(東津)에 들어간다. 주천(注川) : 근원이 음성(陰城)의 보현산(普賢山)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두타산(頭陀山)을 경유하여 초평천(草坪川)이 되어 동진(東津)에 들어간다. 병천(井川) : 근원이 목천(木川)의 작성산(鵲城山)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복귀정(伏龜亭)에 이르고, 산방동천(山方洞川)을 지나 소탄(所灘)이 되며, 동쪽으로 흘러 소정(蘇亭)·신원(薪院)을 경유하여 동진(東津)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동진강(東津江)의 발원지는 충주의 망이산(望夷山)이라 하였는데 오늘날 음성군 삼성면과 안성시 일죽면 사이에 있는 마이산(馬耳山, EL.453.7m) 혹은 망이산(望夷山)이라 불리는 산을 가리킨다. 마이산은 조선시대 경상도에서 충주를 거쳐 한양으로 향하는 봉수로의 하나로 당시 충주목에 속해 있었다. 또한 가리천(加里川), 우천(牛川)과 함께 주천(注川)은 음성의 보현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으로 초평천이 되고 동진에 들어간다는 짧은 구절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미호천의 발원지는 대체로 마이산을 발원지로 보고 여러 지류가 합쳐져서 마지막에는 동진강이 된다는 것으로 선현들은 알고 있으며 여러 문헌에 적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해석을 좀 다르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을 이용한 야후 및 다음 백과사전에 보면 “미호천(美湖川) : 충청북도 서부를 남서류해 금강으로 흘러드는 강. 길이 89km. 대곡천이라고도 한다.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보현산(普賢山:482m) 북쪽 계곡에서 발원해 충청북도 진천군, 청원군과 충청남도 연기군을 거쳐 연기군 남면 월산리와 동면 합강리 사이에서 금강에 흘러든다. 백곡천(柏谷川), 성암천(聖岩川), 석화천(石花川), 무심천(無心川), 남석천(南石川), 병천천(並川川), 조천(鳥川) 등의 지류가 합류된다<sup>4)</sup>”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음성군 보현산을 발원지로 보고 있으며 초평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두산백과사전을 이용한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미호천(

3) 한국의 지식콘텐츠 - 누리미디어(<http://www.krpia.co.kr>)

4) 야후 백과사전 -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

美湖川) : 충북 서부를 남서류하여 금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길이 39.07km, 유역면적 287.32km<sup>2</sup>이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472m : 망이산, 매산)에 있는 망이산성에서 발원하여 충북 진천군, 청원군 및 충남 연기군을 거쳐 남서류 하면서 백곡천(柏谷川), 보강천(寶岡川), 무심천(無心川), 천수천(天水川), 조천(鳥川)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美江)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sup>5)</sup> 라고 되어 있다. 미호천의 발원지를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으로 보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지명편을 인용한 네이트 백과사전에 보면 “미호천(美湖川)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부용산(芙蓉山, 644m)에서 발원하여 도의 서부를 서남류하여 금강에 합류하는 하천. 길이 89.2km, 유역면적 1,860.9km<sup>2</sup>. 부용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 청원군 및 충청남도 연기군을 거쳐 남서류 하면서 백곡천(柏谷川), 보광천(寶光川), 무심천(無心川), 천수천(天水川), 조천(鳥川)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美江)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sup>6)</sup>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미호천의 발원지를 음성읍 음성읍 부용산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온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에도 음성의 부용산을 미호천의 발원지로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3가지는 각각 다른 지점을 미호천의 발원지로 주장하고 있다. 세 지점 중 음성의 부용산은 음성읍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한강 수계에 속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오류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니고 마이산과 보현산은 길이를 비교하여 더 긴 쪽이 가장 발원지라 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최신의 수치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마이산 쪽과 보현산 쪽을 비교한바 보현산 쪽이 약 6.8km 정도 더 길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마이산 쪽의 하천인 미호천보다 보현산 쪽의 하천인 초평천이 미호천의 가장 발원 하천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초평천이 심한 곡류하천이므로 옛날 사람들이 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어느 하천이 더 긴 하천인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예로부터 널리 알려진 마이산을 발원지로 하

여 이후 문헌에 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 진천 농다리의 위치

진천읍에서 남쪽 방향에 위치한 문백면 구곡리 굴티마을 앞 미호천을 가로지르는 진천농다리(충북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sup>7)</sup>는 정확한 축조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자들은 낭비성에서 도당산성으로 통하는 군사 요지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고려 고종 때에 축조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림 6) 진천 농다리

진천 농다리는 폭 3.6m, 전체 길이가 93.6m, 높이 1.2m 규모인데 마치 거대한 지네가 스물스물 물을 건너는 듯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진천에서 출토되는 자주 빛갈의 자연석으로 만들어 돌다리의 색깔도 독특하다. 석회를 섞지 않고 그저 커다란 자연석을 쌓아올려 만든 교각 위에 넓적한 돌 판을 한 개 또는 두 개씩 걸쳐서 상판으로 삼았는데, 교각보다 상판의 길이가 짧아 양옆으로 돌출된 교각이 마치 지네

5)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6) 네이트 백과사전 - <http://100.nate.com/>

7) 문화재청 사이버문화재탐방 - <http://www.heritage.go.kr>

의 다리 같다. 처음에는 교각의 수가 28개였으나 토사의 매물로 양쪽으로 2개씩 유실되어 현재는 24개가 남았다. 교각과 교각 사이는 0.8m이다. 상판 양쪽으로 교각이 튀어나온 점이라든지, 교각의 양 끝을 유선형으로 만든 점 등은 천년 세월을 견딘 견고함의 비결로 꼽힌다. '농(籠)다리'라는 이름은 밟으면 움직이고 잡아당기면 돌아가는 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다리답게 사연도 많다. 마을 주민들은 농다리가 고려 고종 때 이 마을 출신인 임연이 고향 마을 앞에 놓은 다리라 말하고 있다. 임연이 어느 겨울 아침 세금전에서 세수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차가운 냇물을 건너려 애쓰는 것이 친정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효심에 감탄하여 용마를 타고 돌을 실어 날라 다리를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고구려로부터 낭비성을 회복한 후 그 기념으로 농다리를 놓았다는 전설도 있고, 나라의 번고가 있을 때마다 농다리가 울음소리를 내어 마을 사람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전설도 내려온다.

진천군에서는 농다리 일원에서 해마다 천년 세월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다리의 우수함을 가리고 이와 함께 어울리는 농다리축제를 벌이고 있다.



(그림 7) 미호천계

미호천에는 미호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1984년 국제학계에 신종으로 보고된 한국 고유어종인 미호종개가 살고 있다. 미호종개는 유속이 느리고 바닥이 고운 모래층으로 형성되어 수심 1m 미만의 얇은 여울에서만 서식한다는 등 서식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신도시 건설을 위해 골재채취가 성행하면서 토사가 유출되고 하천바닥이 펄로 덮이거나 굵은 모래만 남게 되어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수질오염으로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2005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하였다.

## 2. 현지답사

미호천 발원지 답사는 2004년 1월과 5월 그리고 2010년 11월 등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2004년 1월은 마이산 쪽을 답사하였고 2004년 5월과 2010년에는 보현산 쪽을 답사하였다.

2004년 1월 답사 시에는 준비가 부족하여 단순히 미호천이라는 하천의 이름을 보고 그 끝이 발원지 아닐까? 하고 지도상의 미호천을 택한 다음 마이산을 향해서 답사하였다.

마이산(EL.471.9m)은 미호천 유역의 최북단부에 있으며 경기도 안성군, 이천시와 충청북도 음성군의 3군 경계지점에 있다.

답사는 먼저 안성의 일죽 IC를 나와 좌회전하여 일죽면사무소를 들어가기 전에서 우회전하면 금왕읍 및 삼성면으로 향하는 지방도 583번 도로를 향한 다음 방향을 틀어 고개 쪽으로 향하면 바로 전방에 보이는 산이 마이산이다.

도로를 따라 한참 올라가면 마이산 등산로 기점이 보이는데 이곳을 통과하여 고개 정상쯤 중부고속도로를 위로 통과하는 도로교를 지나 내려가다가 다시 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하여 약 1km쯤 더 간 다음 양덕1리 마을회관에 차를 주차하고 도보로 발원지 답사를 시작하였다.

배낭을 메고 도보산행을 시작하니 옆의 발으로 올라가는 길로 눈이 약간 녹아 질퍽거리는 길을 따라 얼마간 올라가니, 좌측으로 발원지로 향하는 실개천이 보이고 실개천은 마이산 정상을 향하여 하천바닥에 잔 바윗돌을 드러내고 발사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물은 흐르지 않았으나 약간의 비만 오면 하천으로 변할 수

있는 흔적이 뚜렷했다.

계속하여 하천을 따라 올라가니 드디어 하천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일단은 계곡이 큰 하천을 목표로 삼고 더 올라갔는데 약간 더 올라가니 또 양 갈래 하천이 나왔고 역시 물길 이 깊은 쪽을 향하여 계속 올라갔다. 계속 산으로 올라가 안부의 등산로에서 쉬다가 계속 올라가니 등산로 끝에 넓은 공터 비슷한 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 삼삼면 사람들이 청년들을 만났는데 우리는 발원지 찾는 사람이라 말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림 8) 마이산 정상의 표지석

※ 산 정상에는 정상 표지석이 두 개나 있는데, 봉수대가 있는 실제 정상에는 음성군에서 세워놓은 것이 있고, 이곳에서 서쪽으로 매산사 위쪽 삼거리봉에 있는 것은 일죽산약회에서 세워놓은 것이다.

이곳은 마이산 정상의 바로 아래로 이곳 사람들의 쉼터 비슷한 곳이며, 옛날에는 봉수대가 있던 자리인데 성곽도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였다. 또한, 지금 이곳에서 나오는 샘물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샘물은 유량이 적어 1분쯤 받아야 한 모금 정도여서 아주 적은 양이었으나 맛을 보니 허기진 배속이라 그러한지 매우 시원하였다. 이곳은 미호천의 발원지라 할 만하고 금강의 발원샘인 뜬봉샘과 같이 산 정상의 9부 능선 즈음에 있어 유사한 형태라 생각하였다. GPS로 측정한 결과 북위 37°03'06.6", 동경 127°29'23.8"로 확인되었다.

정상은 문화재를 발굴한 흔적인 듯 갈대밭 사이로 이리저리 어지럽게 길이 나 있었으며 문화재 발굴현장이라는 표지

도 있었다.

이곳저곳 돌아보고 다시 올라왔던 길로 내려와서 답사를 마쳤다.

그러나 마이산 쪽은 미호천의 진정한 최장 발원지가 아니었다. 실수를 한 것이다.

답사를 마치고 확인을 위해 발원지 답사의 선각자인 고이형석 씨의 저서를 보니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진짜 발원지를 찾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실수를 확인하고 다시 2004년 5월에 두 번째 미호천 발원지 답사를 하였다. 이번에는 수치지도를 가지고 보현산 쪽이 최장 발원지임을 확인하고 지도를 정리하여 답사를 하였다.

2004년 5월 아침에 집을 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음성으로 향하였다. 음성 IC에서 나와 맹동저수지를 지나 삼용리 삼거리에서 삼생리 방향으로 틀어 승주골로 들어섰다.

일반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하천 옆에 있는 농로 수준이라 내차(아반떼)로는 운행하기가 힘든 길이지만 주인을 잘못 만난 차를 달래며 계속 하천변 길을 털털거리며 올라가서 승주마을을 들어서니 인가는 딱 2제 있었으며 길도 임도 수준으로 운행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억지로 올라가다가 길가의 수로에 빠져 어찌지 못하고 있다가 인가에 있는 농사용 다목적차를 빌어 간신히 수로에서 빼내고 다시 전진하여 드디어 승주고개 밑에 도착했다.

승주고개가 시작되는 지점 인근은 소규모 습지가 많이 발달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경작지로 이용하던 곳이라 짐작되는 풀밭이 보현산 쪽으로 비교적 넓게 이어지고 있었다.

차를 세우고 보현산으로 향하는 하천으로 진입하니 커다란 단풍나무(수령 50~60년) 아래에 샘물이 솟아 나오고 있었다. 지도 상 하천의 시작지점이라 더 올라가 볼까 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시간도 늦어서 보현산 쪽 하천이 미호천 발원지임을 확인만 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아까 들렀던 인가에서 승주에서 나고 자란 한 노인(최상위, 78세)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보현산 북쪽의 구릉지를 별목하고 인공 조림을 하였다 한다. 또

한, 보현산은 동네 사람들이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는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은 여자가 물을 마시러 얼굴을 들이대면 눈앞에 커다란 자라의 등이 보여 물을 못 먹게 하여 여자들은 물을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다 하였다. 실제로 지형도상에서 보현산 능선은 넓은 지역이 조립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11월 13일 최종적으로 미호천의 발원지를 찾기 위하여 승주골을 답사하였다.

이번에는 음성의 감우리 고개에서 승주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 쉽게 도달하는 길을 택하여 답사하기로 하고 음성으로 향하였다. 음성에서 금강으로 넘어가는 37번 국도를 타고 감우재 고개를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큰곰집”이라는 식당을 왼쪽으로 끼고 올라가서 승주고개를 넘어갔다. 4륜 구동차가 아니면 넘어가기 어려운 길이었다.

2004년도에 답사를 시작했던 지점에 차를 세우고 장구를 꺼내 하천으로 다가갔다.

먼저 2004년에 왔던 계절인 5월과 비교하여 숲의 푸른 정도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에 보았던 소택지 옆에 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음성 꽃동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쓰여 있어 이곳이 음성 꽃동네의 상수도 수원지 상류 지역임을 알 수 있었고 옆에는 폐기되어 을씨년스런 비닐하우스가 한 채 있었다.

비닐하우스를 지나 하천에 접근하여 상류를 향해 올라가니 주위는 예전에 경작지로 이용하던 밭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풀밭으로 변한 지역이 나타났다.

계속 하천의 흔적을 따라 올라가니 물길 이어져 있고 가끔 밭 외곽 지역을 지나는 수로가 보이면서 정상을 향해 나 있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 가시덤불과 작은 나무 사이로 물길이 이어지며 보현산 종턱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한참을 좁은 수로 흔적을 따라 올라가다가 보니 드디어 물길의 끝이라 생각되는 넓은 U자형 계곡에 다다랐다.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그 이상의 물길은 없어 보였다.

이곳을 발원지라 생각하고 가져간 GPS로 측정한 후 사진

기로 주변 지형을 찍었다.



〈그림 9〉 미호천 발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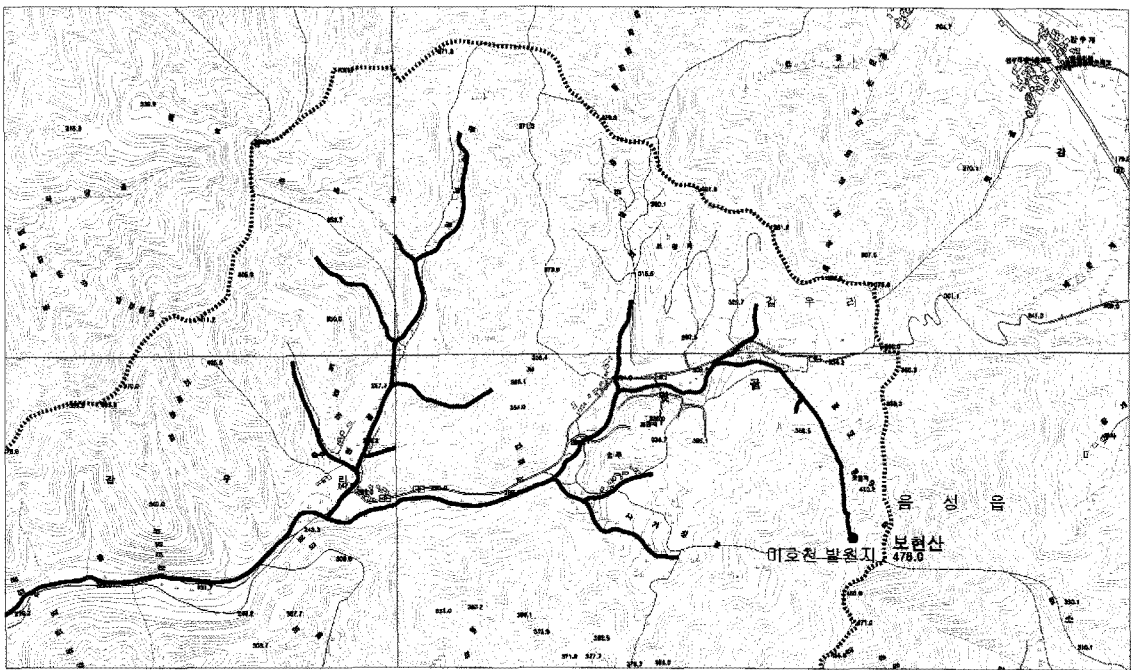
계속 길을 잡아 보현산을 올라가 보니 정상에는 산불감시 초소가 있었다. 동쪽으로는 음성읍의 시내가 뚜렷이 보이고 감우재고개가 남에서 북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정상의 한 나뭇가지에는 음성보현산악회에서 작성한 보현산 분기점 지명안내라는 게시문이 있었다. 여기에 옮기면 “눈보라 날리며 검은 비구름이 강원도 차령산맥을 타고 음성을 휘감아 돌아 그대가 서 있는 발 앞에 멈추어 금강에 피어오르는 흰 구름이 금강 줄기 타고 이곳에서 만나 계절풍으로 조화를 이루어 남서쪽은 금강수, 동북쪽은 한강수 수계를 이루어 금강에 최북쪽이고 한강에 최남쪽이라 한남금북 정맥을 이루어 놓아 동서남북 풍수방향조화(風水方向造化)를 이루어 음성에는 한수재해(旱水災害)가 없다. 이곳 주민들은 정초에 산신제를 모시고 있어 명산으로 받들고 있다. 지도 지적 공부상에는 보현산(普賢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명 만생산(萬生山)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옛 문헌에 만생산하 가활 만인지지(萬生山下 可活 萬人之地)라 하여 수많은 난을 피하여 목숨을 유지한 사람의 수가 만 명은 된다는 뜻이다. 뒤로 차령산맥이 다시 서쪽으로 이어져 협곡을 막은 맹동 통동저수지로 이어져 진천 초평저수지로 이어져 있다. 이곳이 속리산-경기도 칠장사, 강원도 치악산-진천초평 동서남북 사거리 분기점이다. 아래 감우재 고개 전설에 영남 소장수가 한양 소전에 가는 길에 고개에 와서 쉬는 참에 소신 발을 만들어 놓은 짚신이 갑자기 소녀비에 떠내려가서 한 짚은 우측 소녀리 음성 소이 괴산 불정 달래강 목계 여주 벽절

앞 바위틈에 멈추어 있고 한 짝은 좌측 감우리 금왕 생극장 호원 여주 큰 하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소 장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벽절에서 기다리고 있는 짝을 만나 소 장수가 건져서 하느님이 내려주신 짚신이라 크게 감동하여 소 장터에 소문을 내어 많은 돈을 받고 팔아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고개가 빗방울이 반쪽으로 갈라져서 좌우로 간다 하여 이별의 고개로도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감우재는 한강수계 중 달천(음성천)과 청미천(응천)의 분수령임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보현산은 만생산으로도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서둘러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각 GPS 좌표를 지도에 옮기고 도상에서 계산한바 미호천의 발원지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보현산 북서쪽 계곡이며 해발 445m 지점의 북위 36°56'57", 동경 127°38'05"(GRS80좌표계)로 확인되었다. 🌐



〈그림 10〉 미호천 발원지 위치도